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시정 펼치겠다”

자치분권시대 시장군수에게 듣는다

권오봉 여주시장

권오봉 여주시장은 민주당 돌풍이 불었던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며 ‘무소속 돌풍’의 선봉에 섰다. 선출직 선거 첫 출마에서 당선된 그는 취임 일성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혁신, 경제혁신, 복지교육혁신, 문화관광혁신을 약속했다. 중앙부처에서 고위 공직자로 잔뼈가 굵은 권 시장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과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한 자타 공인 경제통달계 시민 1인당 소득 3만달러 달성, 화양지구 조기 개발 등 경제 살리기와 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민선 7기 여수를 이끌어 갈 권 시장으로 부터 시정 방향을 듣고 이를 통해 여수의 미래를 그려본다.

- 공약**
- 시장이 찾아가는 사랑방 좌담회 주민 의견 직접 청취...세부정책 수립 최대 반영
 - 산단기업 지역인재 채용·지역제품 구매 확대
 - 시-기업간 상생협약 체결 확대·가산전제도 확립
 -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복지수요 중심 복지정책 수립
 - 교통 체증·주차 고통없는 여수 건설 공영주차장 무료주차 시간 탄력적 운영
 - 여수시 역사박물관 건립
 - 역사·문화·산업 학습 기회 제공

- 약력**
- ▲여수 동초·여수 구봉중·여수고교 졸업
 -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대학원 도시개발행정학 석사
 - ▲미주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제25회행정고시 합격
 - ▲국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이사관
 - ▲기획예산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추진기획단 단장
 -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기획단 단장
 - ▲기획재정부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국장
 - ▲방위사업청 차장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 ▲제10대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 ▲제5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1인당 소득 3만달러 달성
 정주민구 30만 회복 기반 조성...주차환경개선
 문화·예술·역사 숨쉬는 고품격 관광도시 만들터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다. 취임 소감이 남다른 것 같은데.
 ▲당보다는 저의 35년 행정 경험과 선거 기간중 제시한 정책을 보고 판단해 주신 위대한 시민께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늘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의 이익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시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지역간, 분야간, 산업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분열과 갈등으로 힘의 낭비가 없도록 제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여수시의 각종 현안이 산재해 있는데 가장 시급해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인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울촌2산단 조기 조성과 미래 신성장산업 유치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시민 1인당 소득 3만달러 달성과 정주민구 30만 회복 기반 조성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 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 교육을 혁신해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하고 가정까지 꾸릴 수 있도록 선순환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
 또 연간 100억원이 넘는 교육경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고생들을 위한 진학컨설팅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보건·의료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도 경제와 화양지구 조기 개발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관광인프라 확충과 함께 관련 분야 일자리도 창출해가겠다. 박람회재단과 함께 박람회장 사후활용에도 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아울러 소외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과 청년창업 지원에도 힘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겠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도로교통과 주차환경도 개선해 나가겠다. 여기에 부동산 및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주거 안정 대책도 마련해 인구 30만 회복 기반을 조성하겠다.

-경도와 화양지구 조기 개발을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중앙부처에서 근무할 당시 경제 관련 업무를 주로 보았다. 전남경제부지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내며 직·간접적으로 개발계획에 참여한 경험을 살려 여수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조기 이행 기반을 조성하겠다.
 투자이민지역인 두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아울러 원도심에 집중된 관광인프라를 화양반도까지 확산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크루즈항 활성화, 여수공항의 국제공항화 등 관광의 국제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여수를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도약시킨다고 했는데 문화·관광·체육 진흥 방안은.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역사문화유적지 복원, 전라좌수영 유적을 활용한 체험관광 모델 개발, 이순신정신 계승사업, 순양원목사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 문화·체육 단체 운영 자율권을 보장하고 전문 지도자를 발굴하는 한편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도 보장할 생각이다.
 아울러, 예술인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여수가 문화·예술·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품격 문화 관광도시로 변화 발전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여수의 대표적 관광지인 세계박람회장의 사후 활용과 남만포차의 운영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여수세계박람회장은 KTX 등 접근성이 좋고 바다에 접해 있어 MICE산업 등을 유치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을 갖췄다. 지난해 정부방침이 일괄매각 기초에서 분할매각 및 장기임대료 변경돼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를 계기로 우리시가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단과 공동으로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 한편 해양과학기술원 분원 등 국·공립 해양수산 연구기관 및 대형 컨벤션센터 유치에 적극 힘을 쓰겠다.
 그리고 남만포차는 여수시의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로 원도심의 활력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교통, 쓰레기, 소음 등으로 시민 불편도 함께 야기하고 있어 시에서는 남만포차의 순기능은 살리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시민 500명 이상이 청원하면 직접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운영방안이 궁금하다.
 ▲민선 7기 시정원칙이 시민중심과 균형발전이다. 시민중심이란 시민과 소통을 통해 시민에게 행복을 주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하겠다는 의미다. 열린 시민청원제도는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시민 500명 이상이 청원시에 시장이 직접 답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시정의 중심을 시민에게 두고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무소속 단체장으로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도 있다.
 ▲1982년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래 기획재정부 예산심의관, 재정정책국장,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을 역임하며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35년 공직생활 동안 쌓은 경험과 능력,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국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여수=곽재영 기자



권오봉 시장은 최근 삼일동 청년회원과 여수산단 기업관계자, 주민 등이 참여한 제10회 상암천 살리기 행사에 참석해 참가를 방류했다.



권오봉 시장은 최근 남면에서 열린 사랑방 좌담회에 참석해 남면 주민과 대화를 나눴다.



권오봉 시장(왼쪽 세 번째)은 최근 상삼 침수지역인 국동 롯데마트 앞에서 여수를 찾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 두 번째)에게 침수 대책 등을 설명했다.